



김시훈_3crazygirl_pencil,mixedmedia,oil+ on paper_29cmx42cm_2010

NEW STYLE CULTURE MAGAZINE MADE IN BUSAN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77-12 401호 Voila Tel 051.621.3371 Fax 051.621.3371 매월 5일 발행 문화단지 보일러, 2002년 6월 창간호 VOL.1, 2002년 6월 3일 발행 2002년 4월 29일 등록 등록번호 부산 라-01119 보일러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은 서면으로 원 보일러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cafe.naver.com/voila> | navoila@hanmail.net 보일러는 월간 무료잡지이며, 건국의 대안공간 및 갤러리와 서점이 제휴됩니다. 발행인 & 편집장 & 디자인 강선재 편집위원 서진 기우 & 티지오 정남선 김유리 김정은 김수호 김정봉 윤애진 노현지 오라 표지 김시훈 뒷표지 도너

국립현대미술관 후원

보일러

2010 JULY VOL82 Voila

“어디가는 중인가요?” “부산에 가요”
 < PUSAN ? MARSEILLE > 마르세이유와 부산을 잇는 다큐멘터리

파비앙 아담

Where are you going ?



Un Site de Pierre Adam

프랑스의 마르세이유와 한국의 부산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항구 도시이며 두 나라에서 제 2의 도시이고 고속철도의 중심이다. 파비앙 아담 감독은 마르세이유에서 열차를 타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횡단하여 부산에 이르는 여정을 다큐멘터리와 비디오아트 사이를 넘나들며 담아냈다. 철도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생명력을 얻었던 역사의 형식을 빌려 그는 다양한 소리, 다양한 속도, 다양한 빛을 감각하게 결합시켜는 이치를 보여준다.

글 김정민 purplecuty@hotmail.com

1. 'Where are you going?' 아리는 당신의 영화를 소개해 달라.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한국의 부산에 갈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꿈을 꾸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와 비디오 아트 사운드를 만나들이 프랑스와 한국의 제 2의 도시이자 항구 도시인 마르세이유와 부산을 기차로 연결한다.

“어디에 가나요, 왜?” (“Where are you going? Why?”) ‘부산에 가요’로 요약되는 이 디지털 영화는 한국과 프랑스는 두 나라의 만남이기도 하다. 프랑스 출신의 나와 한국 출신의 김정민은 2001년 이후 유럽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의 중심이 된 마르세이유에서 2004년부터 프랑스 TGV가 한국에서 운행하기 시작한 KTX의 중심인 부산까지 기차로 여행했다.

마르세이유와 부산은 두 나라에서 공히 두 번째 도시이자 항구도시라는 점,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 두 국가 내에서 남쪽에 위치하며 경제와 문화 중심지라는 점, 영화제 개최라는 점 등 수많은 공통점들이 있다. 내게 이 두 도시간의 연결은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나는 이 여행을 계획하고 영화를 제작했다.

마르세이유를 출발한 기차는 스위스 - 이탈리아 - 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 - 보스니아 - 세르비아 - 루마니아 - 우크라이나 - 러시아 - 몽골 - 중국에 이르고, 안타깝게도 황해를 비도 건너 서울에 도착해, KTX를 타고 중점인 부산에 도착한다.

2. 왜 이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2009년도 인도를 여행하던 중, 나는 김정민을 남인

도의 항구에서 만났다. 함께 영화를 여행하면서,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그제와 대화를 하던 중 나는 한국과 더 넓게는 서울에서의 그녀의 삶을 떠올려 보았다. 그녀가 부산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 나는 프랑스의 마르세이유가 부산과 매우 비슷한 느낌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시에 TGV와 KTX가 떠올랐다.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한국의 부산까지 기차를 통해 갈 수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았다. 나는 각각 KTX와 TGV라는 고속철도의 존재감이며, 96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이 두 도시를 기차로 이어보자는 제안을 한다. 김정민은 수락을 했고 우리는 이것을 영상에 담아 영화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내게는 기차 여행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남아 있다. 기차여행은 나에게 동경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라는 새로운 볼거리를 준다. 기차 안에서 나는 이것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받는다. 사베리아





장단 열차는 모든 여행자들이 꿈꾸는 단연 최고의 전설적인 기차라고 할 수 있다!

3. 여행 중 알아야 할 필수 소드를 밑에 알려.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키예브로 가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 짐꾼이 우리에게 다가와 "You're my friend~" 그러면서 우리가 기차 타는 것을 돕길 너무 원하는 거다. 루마니아에서부터는 일어가 전혀 통하지 않아 힘들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까 망설였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힘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는 척 하여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끌며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다. 우리는 화를 내며 "왜 이리하고, 내버려 두라고" 길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우리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타야 하는 기차가 곧 떠나는 것을 알고 있어서 타도록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키예브로

가는 열차가 출발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타야 하는 기차가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큰 배낭을 맨 채로 카메라를 집어 들고 플랫폼 위로 달려가 기차를 향해 "서워 달라"고 소리치며 달려기 시작했다. 이런 기차를 놓친다면 며칠 동안 루마니아에서 머물면서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기관사가 우리를 봤는지 갑자기 기차가 멈췄다. 하하이 우리를 드렸다.

실제로 한국에서 부산행 KTX를 놓친 적이 있다. 상심해 보라, KTX나 TGV 기관사가 기차를 놓쳐 달라고 했을 여행객을 위해 기차를 멈추는거? 그곳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례리아 장단 열차 안에서 있었던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난다. 열차 안의 같은 객실에 지경받는 사람과는 아무래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몇 날 며칠 동안 같은 공간 안에서 잠자고 먹고 하다 보면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객실을 쓰게 될지 늘 기다리며 기차를 타는데, 허뿔는

군인 출신의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보드카를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알콜 중독자라고 하지는 않았다. 러시아인에게 보드카는 생활이니까. 그가 하루에 마시는 보드카 양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문제는 같은 객실을 쓰는 우리에게도 러시아의 전통 이리마 반드시 연속 3잔의 보드카를 마셔야 한다고 날마다 강요하는 것이었다. 경중하게 몇 번 거절하다가 도저히 안 되었다 싶어 3잔의 보드카를 마시고, 나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취하게 되었다. 나는 보드카는 와인보다 강한 술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숙취에 사달려야 했는데, 그는 반세 보드카를 마신 것도 모자라 이침에 일어나자마자 맥주 캔을 따서 마시는 것이었다. 이런 여행에 맥주 캔을 따면 그 소리가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다.

4. 여행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과거 긴 시간동안 배낭여행자로 지내왔기 때문에 음식이나 숙소 등의 일상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의



지 않았다. 하지만 동유럽을 여행할 때 언어 문제로 힘들었다. 특히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영어가 통하지 않아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기차역에서 기차 시간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기차가 연착이라든가 안내데스크에서 물어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안내센터에 있는 직원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내곤 했는데, 아마도 왜 러시아어를 못 하느냐고 하는 듯 보였다.

동유럽은 치안이 불안한 곳이다. 작은 구멍가게에도 총을 메고 있는 경비원이 있고, 가리키는 구경하는 아이, 악랄히 취해 있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따라서 카메라를 비롯한 장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이 곤두섰다. 기차 안에서는 다른 승객들과 여실 동안 먹고 자며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장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5.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의 분단 현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실존을 통해 러시아, 몽골 그리고 중국을 지나왔지만 한국에는 배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지 않은가?

물론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로, 유라시아 철도망은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또한 철도망은 운송료의 절감 면에서도 항공의 좋은 대안이 된다. 하지만 1993년 이래, 한반도에서는 육로를 통한 남북간의 왕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에서 배를 타야만 했다. 비록 지금은 남북이 분리되어 있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고 분리되었던 철도가 연결되어 남한에서부터 기차로 북한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면 남한의 부산에서 포루투갈의 파로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가 될 것이다.

6. 다큐멘터리는 보통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한다. 하지만 'Where are you going?' 은 전체적으로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만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기차의 움직이는 영상이 가미된 전자음악의 배경은 인상적이다. 기차 안에서 만난 류 역사 'Where are you going? Why?' 라는 질문과 답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영화는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기 보다는 감독의 주관적인 흥이 위주로 구성된 유적 비디오를 보는 느낌이다.

나는 이 영화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내가 여행을 하며 필름에 담은 영상들을 음악과 함께 담아내고 싶었다. 나는 이 영화 이전에 영화를 찍어본 경험이 없다. 심지어 여행을 출발하기 1주일 전에 카메라를 구입했다. 따라서 'Where are you going?' 은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고 다소 거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아름다운 주제가 아니라 나와 관객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

다. 누구든 원한다면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마치 기차가 움직이는 듯한 전자음악과 영상들이 결합하다 보면 마치 나 자신이 기차를 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이 이 영화의 매력이다.

7. 'Where are you going?' 이후에 준비 중인 영화가 있는가?

이미 'Pink Lady' 라는 영화를 찍었고 후반작업 중이다. 'Pink Lady' 라는 작품은 한국의 배낭 여행자가 'Pink Lady' 에 머물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 영화이다. Nice 라는 프랑스 한 도시에 있는 'Pink Lady' 라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다르고 불결한 게스트 하우스에서의 동양스럽고 괴짜스러운 주인은 마치 한국의 '아줌마' 스타일이다. 실제로 그곳에 머물렀던 많은 배낭 여행객들은 'Pink Lady' 만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 있다. 나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듯 보인다. 첫 번째 영화인 'Where are you going?' 은 한국인 친구의 함께 만들었고 두 번째 영화 'Pink Lady' 는 한국인이 주인공이다.

'Pink Lady' 역시 한국에서 촬영되어 다시 한 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